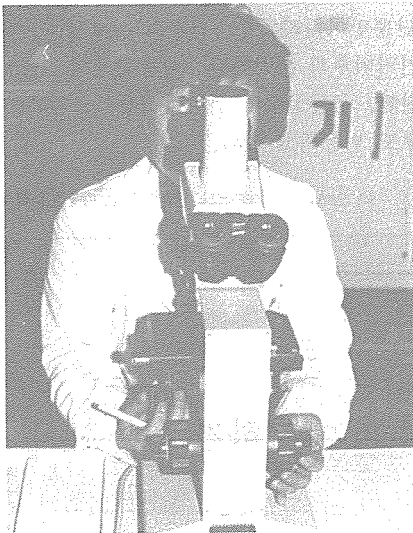


85년, 간흡충 치료사업

(上)



이 준 상



간흡충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은 줄
잡아 100만명이상으로 추측된다.

과거에는 치료약이 없어 많은 사람들
이 공포에 떨고 있었으므로 「당신은 간
흡충에 걸려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자체
가 무서웠으나 최근에 프라지판텔(상품명
: 디스토시드와 빌트리시드)이 판매됨
으로 인하여 한숨 덜게 되었다. 사실 몸
이 건강한 사람이라도 3마디 즉 「당신
은 간흡충에 감염되었는데, 치료약이 없
으니 집에 가서 잘 쉬라」고 한다면 그사
람은 심적으로 벌써 간흡충 노이로제환
자가 되어 실망과 생활의 의욕을 잃고마
는 경우를 과거에는 종종 보았다. 또 근
래에는 간흡충 치료제로 좋은 약이 나왔
으니 나중에 치료하면 된다고 하면서 민
물고기(생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얼마나 경악스러운 처사인가. 물론 프라
지판텔은 좋은 약임에는 틀림이 없다.

간흡충이외에 폐흡충, 촌충, 요꼬가와
흡충 뿐만아니라 뇌에 기생하는 낭미충
(유구조충의 애벌레로 인한 질환)까지도
약효가 있다하니 얼마나 좋은 약인가.

그러나 일단 나빠진 우리몸의 장기는
회복이 불가능 할 뿐만아니라 회복된다
고 하여도 장기간이 요구된다. 또한 어
떠한 약이든 안 먹는 것만 못하다는 것
은 철칙이나, 부득이 치료를 요할때에만
약을 쓴다는 사실도 철칙이다.

우리 몸에 좋다고하는 종합비타민만
하더라도 비타민이 부족한 사람이 복용
해야 약으로의 역할을 하지 정상적인 사
람이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를 가져온다
는 사실은 상식이나, 메스콤은 너무나
과대선전을 하여 그약을 먹으면 무슨 힘

이나 솟구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그렇게 좋다면 그런 약을 만든 회사사장이 다 먹지 왜 팔겠는가 아마 그 회사 사장도 자기회사제품약을 안먹고 있음은 사실일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프라지퀀텔도 정말 필요한 사람이 먹어야 약이지 예방복적으로 또는 다른 기생충에 복용함은 언어도단이다.

그리고 일단 나빠진 간이나 담도는 설령 간흡충이 치료되었다고 해도 빨리 회복되지 않음은 동물실험에서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예를들어 간흡충으로 간경화가 되었다고 했을때 간흡충치료만으로 간경화가 회복된다는 사실은 있을수 없다. 근래에 제약회사에서 피내반응에 의해서 양성반응이 나타났다고해서 무턱대고 간흡충약을 복용시키는 것 또한 크게 그릇된 일이다. 설령 피내반응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간흡충증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대변검사에 의해 간흡충란을 확인한 후 치료받도록 해야하기 때문이다. 피내반응검사만 실시하고 투약하는 것은 기생충과 같은 상인들이 자기몸이 아니니까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니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피내반응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피내반응양성자에게는 무조건 고가의 간흡충약을 복용시키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있다고 하니 기생충만도 못한사람들이어서 재삼 강조하는 바이다.

다행스럽게도 보건사회부와 한국기생충 박멸협회는 1982년 간흡충감염율이 높았던 지역을 5개도에서 각각 1개면씩 선정하여 간흡충란검사를 실시하여 3,556명에 대하여 새로 개발된 약제로

치료하였다. 1984년에도 10시·도, 26시·군·구, 36읍·면·동의 16만 8천명을 대상으로 대변검사를 실시한후 치료하였으며, 금년에도 13시·도, 57시·군·면, 119읍·면·동의 주민 44만 2천명을 검사대상으로 하여 간흡충치료사업을 실시하였다. 내년에도 더 많은 인원을 책정하여 88년 올림픽까지는 우리나라를 간흡충이 없는 나라로 만들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우선 이와같은 국가적인 사업은 하천유역의 간흡충감염 농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간흡충검사를 실시하고 감염자는 무료로 국가에서 치료하여 준다고 한다. 실시방법은 지역단위로 일시에 전대상자를 검사하는데 가검물검사는 한국기생충박멸협회에서 담당하고, 간흡충이외의 다른기생충까지도 무료로 치료하게 되어 있다. 3회째 간흡충치료사업을 마치면서 보면 검사기간동안에는 무관심,바빠서 또는 출타중이어서 대변검사에 응하지 않다가 치료당일 치료할 수 없는가를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불가능하다고 대답하게 된다. 우선 국가적인 사업이고 지역단위로 실시하므로 한번 혜택을 받은 지역은 제외되는 것이 통례이다.

어느 한 사람을 치료하는데에 국가가 어떻게 관여하겠는가. 또한 검사자및 양성자 명단은 각 관공기관에 기록되기 때문에 명단에도 없는 사람을 치료함은 병원에서 진단도 받지 않고 치료받는 즉 무진찰 의료행위에 해당될 뿐 아니라 국고금 남용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개중에는 대변을 아주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여, 취급하거나 들고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검사기관은 남의 대변을 다룬다는 입장도 생각하여 주어야 한다.

이번 치료사업에서 보면 일선 보건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보내 드린다. 각급 보건소 직원 뿐 아니라 면의 보건요원 및 보건지소장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분들의 말을 빌리면 대변견기가 가장 어려운 보건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래서 기생충박멸사업을 잘할 수 있는 보건요원은 다른 보건사업을 잘할 수 있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다. 각급학교의 위생 담당선생님이나 보건소원들이 가장 애를 먹는 것이 대변견는 일이다. 일부학교 및 면에서는 똥선생 또는 똥치녀라고 하여 결혼에 지장이 있다는 웃지 못할 얘기들이 있다고 한다. 얼마나 보건위생적으로 선진국대열에서 거리가 먼 생각인가를 알 수 있다. 또 일선 공무원들의 얘기 또한 기가 막힌 얘기도 있다.

모든 행정관청이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군청의 공문에서 제목이 「보건……」 하면 뒤로 밀리는 사태가 많다고 한다. 우선 처리되는 공문은 「내무……」라고 된 것이라 하니 이 또한 선진국대열에서 얼마나 거리가 먼 생각들인가.

우리나라사람들이 아마 보건이란 말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군청의 위생과도 과거에는 보건소에 소속되다가 본청으로 이관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다.

사실 공무원이나 마을지도자 한사람이 간흡충치료사업을 등한시 하였다고 생각하면 그지역주민은 모두가 국가의 큰혜택을 못 받을 뿐 아니라 국가가 88올림픽까지는 모든 간흡충을 퇴치하려는 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가져옴은 사실이다.

보건위생학적으로 보면 간흡충감염자 그 사람자체뿐만 아니라 그지역이나 일민국민도 생각하여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간흡충을 퇴치하는 것이다.

간흡충감염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면 그사람의 대변에서는 계속 간흡충란이 생겨 그지역은 계속 간흡충이 생겨날 수 있는 감염원으로 오염되어 그만큼 더 많은 간흡충에벌레가 있게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또 그만큼 피해를 주는 간흡충감염자를 만드는 꼴이 된다.

보건위생적으로 선진국대열에 서도록 하루 빨리 간흡충을 몰아내어야 한다.
(필자= 고려의대 기생충학교수·의박)

〈이달의 정화표어〉

체면치레 추석선물

주는부담 받는부담

● 한국기생충박멸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직장정화추진위원회